

『靈樞·本神』의 七情傷五藏에 대한 考察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Abstract

The Observation on the Five Viscera's Damaged due to Seven Emotion in the 『Lingshu · Benshen』

Jung-Kyun Bang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In "Lingshu · Benshen". five viscera are damaged due to changes in emotion having qi flow opposite to five viscera.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mental and physical illness could develop. The content of this piece can be explained in relation to five elements but uniformly through qi's flow.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eart is fire among the five elements and mainly characterized with dispersing. The flow of its qi is characterized facing upward and outward. On the other hand, being afraid or thinking seriously is characterized by making qi to go downward and stop so that the flow of qi is mainly facing toward inward and downward, damaging the heart.

2. The spleen has the conveyance function and spreads qi. On the other hand, worry and emotion inhibit qi function, blocking qi, damaging the spleen.

3. The liver has dispelling and removing functions and the power of sending up. The qi flow goes toward upward and outward. On the other hand, sadness stagnates qi, preventing the flow of liver's qi, damaging the liver. As a result, work is not done accurately. Madness develops with heat accumulated with qi stagnation. When qi is not sending up, mentality is not clear, leading to forgetfulness.

4. The lung has astringent and sending down functions, lowering qi. On the other hand, happy and joyful emotions bring up qi, showing the opposite flow of qi compared with the lung, damaging the lung.

5. The kidney has closing and storing functions, making qi flow to downward and inward. On the other hand, being angry makes qi to go up. Excessive expression of anger damages the kidney. As a result, the yin function of kidney does not work properly, leading to forgetfulness.

key words : Being afraid or thinking seriously, worry, sadness, happiness, anger

I. 序論

의학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을 질병상태에서 건강상태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은 『黃帝內經』 이래로 질병의 발생 원인과 치료에 있어 정신을 중요시하였고, 근자에 들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에 “화병클리닉”이 설치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心を 중요시하는 “四象醫學”이 한의학 치료방법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질병과 정신적 요소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의 원인을 外感과 內傷이라는 큰 범주로 나눌 때 內傷의 범위 안에는 七情에 의한 손상이 포함된다. 七情은 인간의 정상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질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의학에서는 七情을 五行의 범주로 귀속시켜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은 五藏을 길러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정신과 육체를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로 인식을 하면서 상호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만 감정의 표현 상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內經』에서는 여러 편에 걸쳐 七情과 五藏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정신적인 요소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로를 기재하고 있다. 『靈樞·本神』篇의 내용도 정신적인 요소로 인해 五神이 손상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질병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靈樞·本神』篇의 내용은 감정과 五藏간의 관계에 있어 五行의 요소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논자는 五藏과 감정의 氣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본 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靈樞·本神』篇에서는 과도한 정서의 변화로 인해 五藏이 갈무리하고 있는 五神, 즉 魂·神·意·魄·志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形體에 나타나는 질환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心怵傷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破膈脫肉, 毛悴色夭, 死於冬. 脾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怵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於春.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當人陰縮而攣筋, 兩脇骨不舉, 毛悴色夭, 死於秋.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毛悴色夭, 死於季夏.(心에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골똥히 하면 神을 傷하고, 神이 傷하면 恐懼하여 스스로 精을 잃어 膈을 破하고 肉을 脫하게 하며, 皮毛는 초췌해지고 얼굴색은 시들해지며 겨울에 죽습니다.脾에서는 근심하여 풀어지지 않으면 意를 傷하고, 意를 傷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지며 四肢가 들리지 않고, 皮毛는 초췌해지고 얼굴색은 시들해지며 봄에 죽습니다.肝에서는 슬픔이 지나쳐 마음을 움직이면 魂을 傷하고, 魂이 傷하면 미치고 잘 잊어먹으며 정신이 맑지 못하게 되며, 정신이 맑지 못하면 바르기 못하게 되니, 마땅히 사람의 陰囊이 오그라들고 筋이 오그라들며 양쪽 옆구리 뼈가 들리지 않고, 皮毛는 초췌해지고 얼굴색은 시들해지며 가을에 죽습니다.肺에서는 즐거움이 한도가 없으면 魄을 傷하고, 魄을 傷하면 미치게 되고, 미친 자는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행동하며 皮革이 타들어 가고, 皮毛는 초췌해지고 얼굴색은 시들해지며 여름에 죽습니다.腎에서는 잔뜩 화를 내어 그치지 않으면 志를 傷하고, 志를 傷하면 그 전에 했던 말을 잘 잊어버리고, 腰脊을 구부리고 펴는 屈伸을 할 수 없으며, 皮毛는 초췌해지고 얼굴색은 시들해지며 季夏에 죽습니다.)¹⁾

이 문장은 怵傷思慮·憂愁·悲哀·喜樂·怒 등의 정서 변화가 五神을 傷하게 되어 五神이 배속되는 藏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五藏이 主하는 형체 부위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에 가서는 “毛悴色夭”하게 되어 해당 藏을 克하는 계절에 죽게 된다는 내용을 五行의 歸類와 相克 관계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毛悴色夭”에 대해서 張志聰²⁾·郭霽春³⁾·『靈樞經校釋』⁴⁾ 등은 모두 五藏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여, 五藏의 精이 고갈되고 神이 떨어져 나가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五藏과의 관계 즉 五行의 배속 관계를 부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張介賓은 “色夭”를 각 五藏의 死色으로 인식하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장은 과도한 정서의 변화로 인한 五藏傷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醫家들이 정서와 五藏간의 관계, 즉 怵傷思慮-心, 憂愁而不解-脾, 悲哀動中-肝, 喜樂無極-肺, 盛怒而不止-腎 등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다만 『新編黃帝內經綱目』에서 相克·傷母·傷子の 관계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법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相克·傷母·傷子の 병리기전에 있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논자는 본 문장을 五藏의 특성과 五行의 속성을 각각의 정서변화와 연관시켜 본 문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五藏의 생리적 특성 및 五行의 속성과 五藏을 손상시키는 정서의 변화는 각각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고, 그 결과 정서의 변화로 인해 五藏이 손상되는 일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心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破腠脫肉, 毛悴色夭, 死於冬.

心은 火에 배속이 되어 發散을 주로 하고, 火는 『書經·洪範』에서 그 특성을 “炎上”으로 규정하고 있다⁷⁾. 즉, 心은 그 작용성이 주로 외부와 상부로 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怵惕思慮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怵”에 대해 張介賓은 “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바⁸⁾, 恐과 思에 대한 내용을 『素問·舉痛論』에서 살펴보면 “恐則氣下, …… 思則氣結”⁹⁾이라고 하여, 恐과 思에 의한 인체의 氣의 변화를 “下”와 “結”로 보고 있다. 즉, 怵惕思慮는 외부로 발산하고 상부로 향하는 心의 氣의 흐름과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한 怵惕思慮는 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神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한편, “破腠脫肉”을 설명해 보면, 張介賓은 心이 虛해짐으로 인해 脾가 弱해져 脾가 主하는 肌肉에 병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아래에 제시되는 다른 藏의 경우 모두 本藏과 관련되는 形體의 병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도 心과 관련시켜 설명하여야 문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破腠脫肉”은 어떻게 心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心은 血을 주관하고 있는데 心의 發散작용, 즉 추진력을 통해 血이 전신으로 운행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心이 병들어서 인체 발산작용이 장애를 일으키고 그 결과 心이 主하는 血이 肌肉에 공급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破腠脫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脾憂愁而不解則傷意, 意傷則悞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於春.

脾는 체내에서 運化作用을 주관하는 장기이다. 즉, 인체가 수곡을 받아들이면 胃는 腐熟작용을 통해 영양분을 생성하게 되는데, 인체 전신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용을 脾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脾는 中焦에 위치하고 또 土에 속해 인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이외에, 運化작용을 수행함으로써 氣를 全身으로 퍼뜨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憂愁”의 감정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靈樞·本神』篇에서 “愁憂者, 氣閉塞而不行”¹¹⁾이라고 설명하였듯이,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氣가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氣가 閉塞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脾가 氣를 퍼뜨려 줌으로써 인체는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과도한 근심과 걱정은 氣의 운행을 저해하게 되고, 이것이 脾氣의 운행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脾의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脾가 주관하는 四肢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3.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當人陰縮而攣筋, 兩脇骨不舉, 毛悴色夭, 死於秋.

肝은 疏泄작용을 가지고 있고,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되어 만물을 소생시키는 升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봄이 되면 자연도 새롭게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인체도 升發의 기운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다. 인체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肝이고, 肝이 활동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는 腎에서 저장하고 있는 精이다. 그러나, 腎은 精을 간직하려는 속성이 강하여 쉽게 精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腎에 潛藏되어 있던 精을 충돌 없이 꺼내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肝의 疏泄기능이며 升發의 기운인 것이다. 즉, 肝은 그 기운의 흐름이 주로 외부와 상부를 향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悲哀는 肺에 해당되는 정서로 그 기운의 흐름이 주로 내부와 하부로 향해 있다. 그러나, 두려운 감정[恐]이 氣를 下陷시키는 것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니, 이를 『素問學痛論』에서는 “悲則氣消”¹²⁾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놀랐을 경우는 氣가 아래로 폭 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슬픈 감정이 생기면 기운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것이다. 肺와 가을의 時수가 收斂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외부에 펼쳐져 있는 기운을 내부로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하듯이, 悲哀의 감정도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悲哀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肝의 疏泄과 升發의 기능을 억압하게 되어 기운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悲則心糸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營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¹³⁾인 것이다. 즉, 과도한 悲哀의 감정으로 收斂의 작용이 지나치게 되면 營氣와 衛氣의 운행이 원활해지지 못하여 鬱滯되고, 그 결과 熱氣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본 단락에서는 “悲哀動中”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단락의 “狂忘不精”은 “肺喜樂無極”하여 발생하는 狂과 “腎盛怒不止”의 결과 발생하는 忘과 중첩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본 단락의 “狂忘不精”은 狂과 忘의 증상보다는 “不精”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不精”은 肝의 이상으로 일의 처리가 정밀하지 못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肝과 膽은 『素問靈蘭秘典論』에서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¹⁴⁾이라고 하였듯이 일의 처리와 결단을 주관하고 있는데, 肝에 이상이 생겨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不精”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狂과 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狂症은 火熱이 上部로 치성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¹⁵⁾이라고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諸燥狂越, 皆屬於火”¹⁶⁾이라고 하였다. 즉, 陽이 항성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狂症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단락에서 狂症을 제시한 이유는 지나친 悲哀의 감정으로 인해 營衛의 氣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鬱滯되어 熱氣가 체내에 쌓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단락에서 언급한 忘은 “腎盛怒不止”의 결과로 나타나는 忘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悲哀의 감정으로 肝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升發之氣가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여 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의 처리가 정밀하지 못한 “不精”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木에 해당되는 肝膽 기운의 升發이 이루어지지 못해 上部로 氣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神이 맑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 毛悴色夭, 死於夏.

肺는 金과 가을에 해당되어 收斂과 肅降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주된 氣의 흐름이 내부와 하부로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五藏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肺는 五藏 가운데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肺의 수렴기능과 관련이 있다. 수렴의 의미는 봄과 여름의 기간을 통해 벌어들인 氣를 가을의 肅殺작용을 통해 불필요한 것을 털어 내어 정밀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부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봄과 여름동안 氣를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산되었던 가장 상층부와 표층부에서부터 수렴 작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렴의 작용은 안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활동은 가장 상부와 표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인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으니, 인체에서 가을의 수렴작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肺이기 때문에, 肺가 장부 가운데 위치적으로 가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인체의 가장 표층부인 皮毛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肺는 활동의 터전을 가장 상층부와 표층부에 두면서, 그 작용하는 氣의 흐름은 하부와 내부로 향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喜와 樂은 정반대의 氣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 喜樂은 모두 氣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喜가 五行 속성상 火에 속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쁘거나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氣를 끌어올려 전반적으로 흥분상태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肺와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는 喜樂의 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면 肺에 손상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상부와 표부에 있는 氣가 하부와 내부로 수렴되지 못하고, 과도한 喜樂의 감정으로 인해 상부와 표부로 氣가 몰리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을 狂症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毛悴色夭, 死於季夏.

腎은 水와 겨울에 해당되어 閉藏을 주로 하는 장부이다. 즉, 봄·여름 동안 벌어들인 氣를 가을에 肅殺과 收斂 작용을 거쳐 정밀한 상태로 거두어들이면, 그것을 精의 상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腎은 精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氣의

흐름이 내부와 하부로 향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怒의 감정은 氣를 上逆시키는 작용을 하여 腎의 기능과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怒의 감정 표출은 腎을 손상시키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나는 병리적 상황을 본 단락에서는 “喜忘其前言”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건망증이 생겨 앞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한다는 기전은 사물의 현상이나 상황을 내부에 저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 氣의 흐름으로 본다면 내부와 하부로 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腎의 주된 기능을 “藏精”이라고 보았을 때, “藏”의 기능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陰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 怒함으로 인해 잘 잊어버리는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한 것은 腎의 陰의 작용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結論

『靈樞·本神』篇에서는 五藏과 상반된 氣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정서의 변화로 인해 五藏이 손상을 입고, 그 결과 정신적·육체적 질환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편의 내용을 五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氣의 흐름을 통해 이해하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心은 五行上 火에 속하고 發散을 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氣의 흐름이 주로 상부와 외부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怵惕思慮는 氣를 下陷시키고 맺히게 하는 특징이 있으니 氣의 흐름이 주로 내부와 하부로 향하고 있으므로 心을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心의 血을 推動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肌肉으로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므로, “破脰脫肉”의 병리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2. 脾는 運化작용을 주로 하면서 氣를 퍼뜨리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해 憂愁는 氣의 유행을 억제하여 氣를 閉塞시키게 되므로 脾를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3. 肝은 疏泄기능을 가지고 있고 升發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그 氣의 흐름이 주로 상부로 외부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悲哀는 氣를 鬱滯시키는 특징이 있어 肝의 氣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肝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 결과 일의 처리가 정밀하지 못하고 氣가 鬱滯됨으로 인해 熱이 쌓여 狂症이 생기고, 氣가 升發되지 못하여 神이 맑지 못하므로 건망증이 생기게 된다.

4. 肺는 收斂과 肅降기능이 있어 氣를 내려주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해 喜樂은 氣를 끌어 올리는 특성이 있으니, 肺와는 상반된 氣의 흐름을 나타내어 肺를 손상하게 된다.

5. 腎은 閉藏을 주로 하여 氣의 흐름이 하부와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怒는 氣를 上逆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怒한 감정의 과도한 표출은 腎을 손상시키게 되어, 그 결과 腎의 陰의 작용이 발휘되지 못하여 건망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68
2.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 山東.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00
3. 郭霽春 編著.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 83-85
4.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78-182
5.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51-52
6.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89-190
7. 『書經』. 대전. 學民文化社. 1990. 地 336
8.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51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46
10. 張介賓 編著. 『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51
1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68
1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46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46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4
1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6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304